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정답 및 해설

01. ⑤ 02. ③ 03. ④ 04. ② 05. ① 06. ④ 07. ⑤ 08. ② 09. ② 10. ②
11. ③ 12. ⑤ 13. ④ 14. ① 15. ③ 16. ⑤ 17. ① 18. ③ 19. ② 20. ④

1. 노자가 강조한 삶의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가상 대화의 ‘스승’은 노자이다. 노자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이상적인 삶의 태도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태도를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노자가 강조한 삶의 태도는 ‘인위적으로 일을 도모하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소박하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노자는 예(禮)를 무위자연과 양립할 수 없는 인위 규범으로 보았다.
- ② 노자는 분별적 지식이나 지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 ③ 노자는 ‘해탈’을 말하지 않았으며, ‘남의 해탈을 위한 헌신’을 강조한 적도 없다.
- ④ 인의(仁義)의 덕을 함양할 것을 강조한 사상은 유교이다.

2. 플라톤과 에픽테토스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플라톤이고, 을은 에픽테토스이다. 스토아 사상가인 에픽테토스는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에 무관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외적 원인에 의해 생기거나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와 명예 같은 것은 원하지도 피하지도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플라톤에 따르면 참된 실재, 즉 이데아는 현실이 아니라 이데아계에만 존재한다.
- ② 플라톤이 강조한 절제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이다.
- ④ 스토아 사상가들은 각자가 자신의 역할과 사회적 의무를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⑤ 플라톤과 에픽테토스는 모두 이성에 맞는 욕구 충족과 덕의 함양이 양립 가능하다고 보았다.

3. 공자와 장자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공자이고, 을은 장자이다. 장자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를 추구하였다. 그는 사회적 ‘지위’나 ‘신분’과 같은 세속적 가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인위적인 ‘제도’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위를 규정하는 제도를 세워야 한다.’는 진술은 장자의 입장이 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공자는 통치자가 덕으로써 백성들을 교화해야 한다는 덕치를 추구하였다.
- ② 공자에 따르면 통치자는 재화의 적음보다 분배가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 ③ 장자는 인위적인 제도나 문명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어떠한 외물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逍遙(소요)] 삶과 모든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한 것으로 보았다.

로 보는[齊物(제물)] 삶을 추구하였다.

⑤ 공자는 인의라는 덕에 따라 살 것을 강조하였고 장자는 소박한 자연의 덕을 따라 살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4. 에피쿠로스와 벤담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에피쿠로스이고, 을은 벤담이다. 에피쿠로스와 벤담은 모두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고 보는 쾌락주의 사상가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진정한 정신적 쾌락을 위해 모든 육체적 쾌락을 억제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식욕이 최소한으로나마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에피쿠로스와 벤담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③ 에피쿠로스는 부정, 벤담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④ 에피쿠로스와 벤담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⑤ 에피쿠로스와 벤담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5. 석가모니의 무아 개념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나)의 가로 열쇠 (A)는 '무위(無爲)'이고 (B)는 '물아(物我)'이므로 세로 낱말 (A)는 '무아(無我)'이다. 석가모니의 무아 개념은 브라만교에서 영원불멸의 실체로 여기는 '아트만'이라는 형이상학적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아가 현상계 속에 '어떠한 나'도 존재할 수 없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현상계에는 오온(五蘊)으로 이루어진 '가상적 자아[假我(가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무아는 독립적인 실체를 부정하는 말이므로 옳은 진술이다.
- ③ 무아는 '불멸하는 나'를 부정하는 말이므로 옳은 진술이다.
- ④ 무아는 '나'에 대한 집착을 끊어 버리라는 말이므로 옳은 진술이다.
- ⑤ 무아는 '독자적 나'가 없다는 말이므로 옳은 진술이다.

6.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소크라테스이고,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지행합일설을 제시하였다. 참된 앎은 실천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자제력 없는 사람'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선이 무엇인지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ㄱ).'라는 것은 소크라테스만의 입장이다.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이성과 추론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이성과 추론을 통해 무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ㄴ).'라는 것은 두 사상가의 공통 입장이다. 한편 두 사상가는 모두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 보았으며 행복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덕이 필요하다(ㄷ)고 주장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ㄹ. 두 사상가의 공통 입장이므로 B에 해당하는 진술이다.

7. 혜능과 지눌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혜능이고, 을은 지눌이다. 선종의 대표자인 혜능은 돈오돈수(頓悟頓修)를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선종과 교종의 조화를 추구한 지눌은 돈오점수(頓悟漸修)를 주장하였다. 지눌은 점수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제시하였다(ㄷ). 그러나 두 사상가는 모두 돈오를 중시하였다(ㄹ).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혜능은 경전 공부를 중시하지 않았다.

ㄴ. 지눌은 깨달은 후에도 보살행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8. 고전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고전적 자본주의 사상가인 애덤 스미스의 주장이고, (나)는 공산주의 사상가인 엥겔스의 주장이다. 고전적 자본주의 사상에서는 사유 재산제와 자유로운 경쟁을 중시하며, 자유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ㄱ). 이에 비해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생산 수단의 사적인 소유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으로 본다(ㄷ).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ㄴ. 대표적인 공산주의 사상가들인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분업을 불평등과 소외의 원인으로 보고 비판한다.

ㄹ.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공산주의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추구한다.

9. 순자와 맹자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순자이고, 을은 맹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고 예를 통해 본성을 교화하고 재화를 분배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예에 따라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여 욕망을 충족시켜야 한다(ㄱ). 순자와 달리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았으며, 본성인 인의에 기반을 둔 왕도(王道) 정치를 추구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의를 해치는 군주는 추방될 수 있다(ㄷ).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ㄴ. 맹자에 따르면 백성은 일정한 생업[恒産(恒産)]이 있어야 일정한 도덕심[恒心(恒心)]을 지닐 수 있다. 그러므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백성의 생업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ㄹ. 맹자는 기본적으로 법이나 예를 사용하는 정치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전적으로 법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반대한다. 순자 역시 법이나 예에 의한 정치를 반대하지 않는다.

10. 아퀴나스와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아퀴나스이고, 을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법에는 영원법, 자연법, 실정법의 순으로 위계질서가 있다. 영원법이 자연법의 근거가 되듯이 자연법은 실정법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자연법에 어긋나는 실정법은 법의 본질인 이성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연법에 위배되는 실정법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아퀴나스에 따르면 신앙이 이성보다 중요하지만,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 ③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악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 의지를 남용함으로써 생겨난 것이다.
- ④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인간의 최고 행복은 신을 사랑하여 신의 본질을 보고 신과 하나가 되는 데 있다.
- ⑤ 아퀴나스와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인간 자신만의 노력으로는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의 은총이 있어야 한다.

11. 이이와 이황의 이기론과 사단칠정론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이이이고, 을은 이황이다. 이황에 따르면 사단은 이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다. 그러나 이이에 따르면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한 것이며,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으로서 칠정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이는 이황에게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다르지 않으며(ㄴ), 이는 발하는 까닭인 것이지 발하는 것은 아니다(ㄷ)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ㄱ. 이이는 물론이고 이황도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타서 드러난 감정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이가 이황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반론이 아니다.
- ㄷ. 이의 자발적인 동정(動靜)을 인정한 것은 이이가 아니라 이황이다. 그러므로 이이가 이황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반론이 아니다.

12. 이황, 이이, 정약용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사단은 사덕의 시작[始]이다. 성리학자인 이황과 이이는 ‘사단과 사덕은 선천적인 것이며, 사단은 본성인 사덕이 마음에 내재함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서’라는 주희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정약용 역시 사단을 선천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는 “사단은 인성(人性)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며, 사덕은 사단을 확충한 것이다.”라는 그의 주장에 잘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이황, 이이, 정약용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은 ‘사단은 선을 좋아하는 기호(嗜好)에 따라 행동하여 형성되는 것인가?’라는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이황과 이이는 부정하지만 정약용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② 정약용은 부정하지만 이황과 이이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③ 정약용은 부정하지만 이황과 이이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④ 이황과 이이는 부정하지만 정약용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13. 스피노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는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이 이성을 온전히 사용하여 신 또는 자연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면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현자(賢者)가 될 수 있다. 이때의 신 또는 자연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것은 신을 지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인격신이 아니라 자연이다.
- ② 스피노자는 ‘모든 정념을 버릴 것’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 ③ 스피노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그리고 필연적인 인과 질서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 ⑤ 스피노자가 말한 신은 만물의 초월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원인이다.

14. 밀과 매킨타이어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밀이고, 을은 매킨타이어이다. 밀은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를 비판하고 질적 공리주의를 제시하였다. 밀에 따르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단순한 감각적 쾌락보다는 지성의 쾌락, 심미적 쾌락 등과 같은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밀은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했지만, 육체적 쾌락의 추구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 ③ 매킨타이어에 따르면 덕은 공동체의 전통에 참여함으로써 길러지는 것이다.
- ④ 매킨타이어에 따르면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덕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 ⑤ 밀은 ‘유용성의 원리’ 또는 ‘최대 행복의 원리’라는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해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15. 주희와 왕수인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주희이고,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양지(良知)를 타고난 앎으로 보지만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앎으로 여겼다. 이에 비해 왕수인은 양지를 천리(天理)이자 마음의 본체이며 시비를 분별하는 능력으로 보았다. 따라서 양지를 강조하는 정도(X)는 왕수인이 높다. 주희는 덕성의 실천을 위해 사물에 대한 이론적 탐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왕수인은 이론적 학습보다는 구체

적인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의 실천이나 행동을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이론적 지식을 강조하는 정도(Y)는 왕수인이 낮다. 주희는 마음과 개별 사물 모두에 이치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치이며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고 사물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마음과 이치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정도(Z)는 왕수인이 높다.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②, ④ ⑤ 주희의 입장에 비해 왕수인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16. 키르케고르와 듀이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키르케고르이고, 을은 듀이이다.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진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체적 결단에 달려 있는 것이다. 듀이에 따르면 지식이나 윤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험적 탐구로 보편적 도덕 기준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은 키르케고르의 입장이 아니며 듀이의 입장도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키르케고르는 신 앞에서 실존적 결단을 내리는 것만이 불안과 절망,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 ② 키르케고르는 실존적 상황에서는 오직 주체성만이 답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듀이에 따르면 진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 ④ 듀이는 지식이나 도덕과 관련해서 관찰과 실험을 중시하였다.

17. 현대 심의 민주주의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그림의 강연자는 심의 민주주의의 필요성과 특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들 간의 대화, 토론, 소통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 계속 변화시켜나가면서 공공성을 지향하고 집단적 의사를 도출하려는 민주주의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들 간의 토론과 소통을 통해 정책 결정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강조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심의 민주주의는 심의 참여자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③ 심의 민주주의에서 중시하는 심의는 순전히 사적인 이익을 표출할 수도 있는 투표 행위와는 대조적으로 공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다.
- ④ 심의 민주주의는 정책 심의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 ⑤ 심의 민주주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18. 흄과 칸트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흄이고, 을은 칸트이다. 칸트는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실천 법칙인

도덕 법칙을 따를 것을 강조하였다. 이때의 도덕 법칙은 실천 이성이 부과한 자율적 명령으로서, 정언 명령의 형태로 나타난다. 각 개인이 나름대로 정립한 행위의 규칙인 준칙은 보편화 가능성을 확보할 때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흄에 따르면 이성은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인 동기는 될 수 없다. 그러나 이성은 상황의 분석이나 합리적인 대책의 수립 등과 관련해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② 흄에 따르면 사람들이 함께 느끼는 정서적 반응이 선악의 구별 근거가 된다.
- ④ 칸트에 따르면 ‘의무에 맞는’ 행위라고 해서 모두 도덕적인 행위는 아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한 행위만이 참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 ⑤ 흄은 도덕의 목적을 모든 사람들의 행복 증진과 관련지었다. 그러나 칸트에 따르면 도덕은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 될 수 없고 다른 무엇으로도 환원될 수 없다.

19. 왈처와 롤스 정의론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가)의 값은 왈처이고, 을은 롤스이다. 왈처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였으며,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롤스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은 가상적 최초 상황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왈처는 분배 영역들 간의 경계는 안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ㄴ),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ㄷ). **정답 ②**

[오답피하기]

- ㄱ. 왈처와 롤스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므로 A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 ㄷ. 롤스에 따르면 기본적 자유는 어떤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익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고 사회 복지와 같은 명목으로도 훼손될 수 없다.

20. 홉스의 기본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은 홉스의 주장이다. 홉스는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 규범과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강력한 국가를 세운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합의에 의해 성립한 것이다(ㄴ). 그리고 자연 상태에는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ㄷ). 공공의 힘이 없는 곳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법이 없는 곳에서는 불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ㄱ. 홉스에 따르면 군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의 허가 없이 군주제를 폐지하고 무질서한 군중의 혼란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
- ㄷ.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이기적이지만 합리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존재이다.